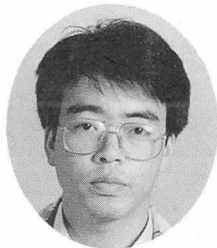


우리 양돈업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예전에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산업 경제활동이 급속한 팽창을 하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세계를 단일 시장화 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에 와서는 철통같이 빗장을 걸고 있던 북한까지도 미국 상업 자본주의에 대한 진출 허용 조짐을 보이고 있을 만큼 한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세계화가 이렇듯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가? 그 의미는 간단하다. 세계를 우리의 시장으로 삼아 산업 발전의 기회를 넓히자는 것이다. 양돈업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WTO의 출범을 오히려 국내 양돈업 발전의 기회로 삼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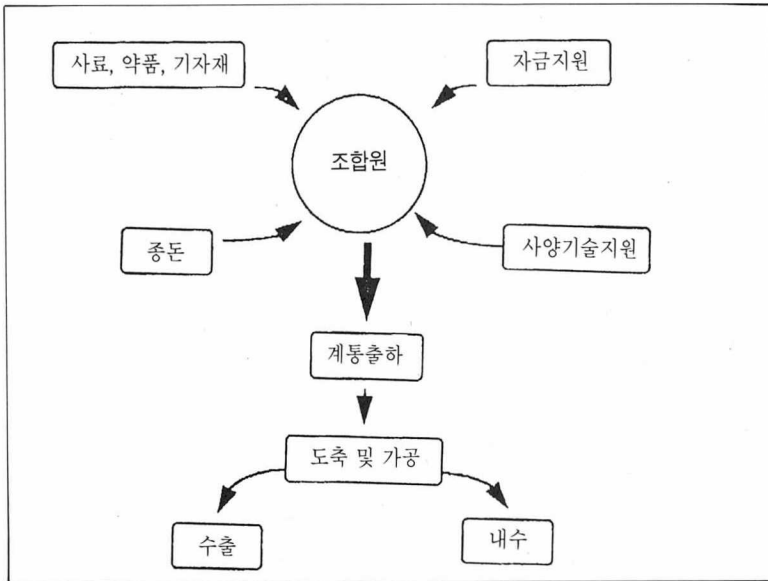
아 세계를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 1차 산업 중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양돈업마저도 수입개방과 동시에 기반이 흔들려 결국 포기 선언까지 하게 될 경우 국가 전체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며 더군다나 식량안보 측면에서까지 생각해 본다면 양돈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여부는 우리나라의 여타 1

차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양돈업계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간략히 다루어 보겠다.

1. 협동조합의 위상 재정립

우리나라의 전업농 이하 대부분의 양돈농가는 지역, 또는 업종 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통한 각종 사업이 협동조합 설립의 본뜻을 살려 원활히 운영된다면 국내 양돈업의 세계화 추진은 한결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동조합은 다소 그 본래의 뜻에 못미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림 1〉 조합 계열화 사업의 형태

이 든다. 여기서는 조합의 역할 및 개선방안 중 양돈에 관련된 부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기업농에 대한 일반 양축가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크게 경제사업, 지도사업, 그리고 신용사업의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 된다(〈그림 1〉 참조).

1) 경제사업 : 조합의 경제사업은 공동구매를 통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입케 하고 생산된 비육돈에 대해서는 계통출하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합원이

사양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공동구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농에 비해 원자재의 구입비가 결코 싸지가 않다는 점과 계통출하 물량을 조합에서 거의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을 외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조합의 업무 개발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농장에서 갑자기 환돈이 발생되어 폐사 전에 판매를 해야 할 경우 조합보다는 대부분 인근 상인들이 처리를

해 준다. 그리고는 상인은 그 농장의 비육돈 판매를 자기에게 할 것을 강요하게 되고 농장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상인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연결 고리는 시세에 따라 계통출하나 현지 판매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순발력 있게 사업의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도사업 : 조합의 지도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환원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조합의 사업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농장의 사양기술, 질병 예방, 그리고 시설부분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나 조합원을 지도할 전문 기술 요원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요즈음 보다 전문화된 기술 지원을 농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본질적인 환원사업 측면에서 기술지원 체제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신용사업 : 도시 유희 자금을 흡수하여 농장경영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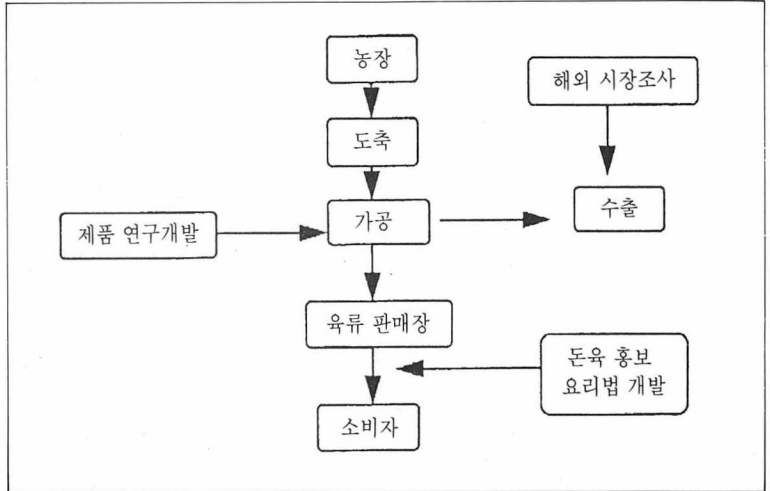
으로 조합원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조합의 신용사업은 꼭 필요한 조합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해서 만큼은 문턱을 좀 더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동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거대한 조직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계열화, 돈육의 브랜드화, 수출 그리고 돈육 소비 창출을 위한 사업들도 보다 능동적이고 사명감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2. 돈육의 상품가치 제고 및 유통

소비자의 입맛과 식생활 문화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또한 신세대라고 일컬어 지는 젊은 층의 소비형태는 감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엄청난 공을 들여 비육돈 생산을 제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돈육의 소비가 안된다면 결국 양돈업은 존립의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돈육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돈육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



〈그림 2〉 돈육생산에서 소비까지의 흐름 개요

항을 든다면

첫째, 돈육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까지의 전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2〉 참조). 이를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사양관리부터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도축 및 육가공 시설의 현대화와 돈육 유통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둘째, 육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들은 지방질이 많은 고기 보다는 살코기가 많고 담백한 고기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농장에서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종자개량의 방향을 맞추고 그에 맞는 사양관리 기법으로 돈육을 생산해야 하겠다. 더불어 이렇게 생산된 돈육을 브랜드화 하게 된다면 소비자

들의 관심을 끌게 되지 않겠는가? 현대의 양돈은 사양관리뿐 아니라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다. 돼지를 키워서 출하만 하면 끝나버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셋째, 돈육 소비촉진을 위한 새로운 요리법 및 육가공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다양한 육가공품 및 요리법을 개발하여 새로운 돈육소비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국형 종돈의 기준도 제시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넷째, 국산 돈육의 소비 촉진 기회를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의 돈육 소비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리고는 치밀한 판매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국내 수출기반에 대한 재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양돈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현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이다. 한 산업의 성패 여부가 정보 관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양돈업은 어떠한가?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양돈업도 과거와는 달리 점차 집약화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자료들 또한 그 양이 늘어가고 있다. 더불어 이제는 외국의 각종 정보에도 세심히 귀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과연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정확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현재까지 우리의 양돈 관련 자료는 선진 양돈 국가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고 보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귀중한 정보 자료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양돈 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설립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옥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던가? 열 사

람이 각각 한 가지씩의 자료를 갖고만 있을 경우 그 자료는 단지 한 가지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나 그 자료가 모여 통합 관리될 때에는 백 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국내 양돈업을 최단 시간내에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관건은 데이터 베이스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 된다.

4. 질병 대책 및 한국형 사양관리 기술의 개발

국내 돼지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양돈 총 생산액의 약 20%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질병 피해를 10% 정도로만 줄인다면 비육돈 생산비의 절감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농가에서의 철저한 방역 대책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돈 콜레라와 오제스키병 만큼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박멸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외국의 좋은 선례가 있지 않은가?

질병 문제와 더불어 사양관리 기술 및 육종에 대한 국내 연구 개발도 활성화 되어야 한

다. 지금까지 주로 외국의 기술을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시켜 도입하는 정도였으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종속국이라는 멍에를 벗지 않고서는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양돈 전문 종합 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곳에서는 가장 한국 실정에 맞는 양돈기술이 개발되고 보급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양돈 업계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후진을 양성하는 기능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돈 전문 연구소의 설립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각 대학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 하여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초 연구에 투자 없이는 세계화의 격차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

언젠가 어떤 외국인이 한 말이 기억이 난다. "한국이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먼저,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국제 감각에 맞게 다듬는 일이다."

우리의 양돈업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다듬어야 할 것인가?